

‘밤에도 불꺼지지 않는 연구소’

-KIST 전산실 흥릉시대의 개막-

김길조

성 박사님이 회갑을 맞이한다고 하니, 항상 스포츠머리에 젊어 보이던 천재형의 석학에게도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처음 성 박사님과 종로 2가에 있는 YMCA 4층 전산실(KIST가 처음 설립하여 흥릉 건설기간 동안 사용하던 연구소가 빌려쓰던 건물이었으며, 1969년 초에 흥릉으로 이사갔음)에서 만났던 기억은 68년 9월 하순이었다. 그때 나는 육군 경리장교로 8월 말에 전역한 후, 종로 2가 근처 관철동에 있었던 한국산업능률본부에 나가면서 기업진단업무, 원가계산용역 등 기업경영과 회계관계의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발전하려면 경제발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와 산업분야에 자립기술개발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활용으로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에 매료되어, 가능하다면 KIST컴퓨터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엘리트 중심의 모임으로 끌고 나갈 컴퓨터실에 들어오려면 입소시험을 치루어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여, 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그후 입소결정은 되었지만, 68년도 전산실 예산의 제한 때문에 69년 1월 초에 발령내기로 하고, 그 동안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은 프로젝트 예산에 따라 경제분석실(그후 1, 2 연구실로 나누어졌음)에서 윤여경 실장과 68년 10월부터 일하러 나갔다. 그때 경제분석실의 프로젝트가 흥한방직(주)(현재의 원진레이온 도농공장)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적인 진단업무

였으므로 홍릉에 연구소가 한창 건설중에 있었지만 1차 연구동의 1동에 문짝도 붙이지 못한 채, 우선 바닥 타일만 붙이고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만 들여 놓고, 연구실 표시도 없이 홍릉으로 처음 출근하게 되었던 것이다.

KIST의 홍릉시대를 처음 맞이 하게 된 연구프로젝트팀의 입주였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68년 12월을 넘기고 나서, 성 박사님과 초창기 YMCA멤버들(안문석 박사, 이승윤 박사, 이명재 박사, 이춘희 실장, 김길수 사장, 한윤경 사장, 당시 비서였던 미스 손 등)이 홍릉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나 역시 전산실에 정식으로 69년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이것이 KIST 전산실 홍릉시대의 개막이었고, 그 후 전자계산실, 전산센터, 부설 전산센터, 부설 시스템공학센터, SERI 시대의 개막과 강남에서의 분원설치, 대덕연구단지로 이사 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작이었다.

그후 69년부터 KIST 홍릉 본관 1층에 전산실의 CDC 3300 도입 준비를 하여 설치하였고 한편으로는 명동에 UNESCO빌딩에 있었던 CDK(Control Data Korea Ltd.)에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나가게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의 일환이었다. 24년~25년 전인 1969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았고, 경제개발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정도로 발전을 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을 뿐, 아직도 사회적인 컴퓨터에 대한 인식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 홍릉시절의 초창기 컴퓨터실 멤버들이야말로 독신기숙사에 대부분 살면서 앞으로 다가 올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불꽃 튀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 팀들을 모아 국가의 장래를 위한 사심없는 결정들을 하던 성 박사님의 의연한 자세가 돋보였다.

그때부터 시작한 전산인의 양성과 배출 및 각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의 잊을 수 없는 몇가지 일들을 회상하면 먼저 근무 시간 없는 열성과 구내 식당 쿠폰제도 일 것이다. ‘밤에도 불꺼지지 않는 연구소’를 표방하였던 60년대 말 KIST에서는 으레 저녁 먹고 연구실에 남아 있었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분야를 열심히 추구하였다. 이러한 일하는 분위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던 나는 위촉제도에 의해 일하던 동료들에게 저녁식사 쿠폰을 대신 사인해 주거나, 같이 구내식당에 가면 으레 내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의 식권에 사인하였다. 어느날 부소

장님실에서 호출하셔서 갔더니 “당신은 위가 얼마나 크기에 한달 동안에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KIST에 MIS팀을 만들어 경비를 계정별로, 사용자 비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 시작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연구소 id-no별로 집계된 내 계정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연을 설명드렸더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앞으로는 각 개인별로 사인해야 된다, 위촉연구원을 프로젝트에서 직접 책임자가 쓰더라도 연구소 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각 실별 실행예산에 구체화된 예산항목 범위내에서만 써야 된다, 프로젝트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실별, 연구프로젝트별, 연구원별 업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던가, 개인별로 타임카드제도를 도입하여 기록관리하고 사전통제되어야 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연구분야의 특성상 개성이 강하고 개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에 타임카드제도가 당시만 해도 성공하기가 꺾어 어려웠다. 또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밤 늦게까지, 심지어는 밤을 세우면서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열정에 비하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던 성 박사님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타임카드 같은 제도는 별로 문제 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타임카드 제도가 잘 정착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또 당시에 연구실이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 프로젝트를 많이 따 와야 된다고 연구계획서를 수없이 써서 제출하던 기억들이 새삼스럽다. 많은 연구계획서를 쓰면서 아쉬웠던 것은 당시의 연구원들에게 KIST가 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연구원들을 외부로 내 보내지 않고 유지하면서 좋은 연구성과를 연구과제와 결부시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제도상 박사학위를 주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던 성 박사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생겨났지만, 그 당시의 꿈 같은 많은 구상들이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보면서, 먼 날을 꿰뚫어 보시던 성 박사님의 선견지명에 다시 한번 감탄하여 마지 않는다. 도로교통문제, 중학교 입학 무시험배정문제, 전매청프로젝트, 정부기관 전산센터검토, 기업 MIS구축을 위한 시도, 한글프린터개발에 대한 집념, CAD/CAM과 같은 분야의 일, 토목 건축기술 분야의 컴퓨터 설계기법도입, 통계패키지의 과감한 도입과 활용, CDC 3300 설치를 전후한 KIST위상확립, 컴퓨터 통신교육의 시범적인 운영과 상업고등학교 전산교육의 실시, 서울 시청의 재산세 전산화와 행정전산화의 대두, 전화요금전산화로 체신행

정분야의 변화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구과제의 준비와 개발에 불을 지피던 시절이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러 옛 추억이 되었고 나 역시 50대 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 동안 성 박사님이 직접 박사학위는 주지 않았지만, 박사님과 함께 지내 온 연구원 중 약 50여명에 이르는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에 집착하거나 참신한 연구과제에 적응력을 길러준 은덕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계속 새롭고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서 달성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성 박사님의 실천력이야말로 우리들이 높이 받들어야 하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젊은 날의 행로를 바꾸게 하여 주셨던 성 박사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회갑연을 축하드리고 계속 건강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발전에 대들보로서 기틀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